러, 나발니 지지 시위 확산…위기의 푸틴

저유가 고통·고질적 부패·팬데믹 국민들 누적된 불만 분노로 바뀌어
WSJ "'스트롱 맨' 대통령 큰 위협"

러시아에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으로 촉발된 시위가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나발니 수감과 관련한 러시아 내 시위가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운동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며 "그 이면에는 생활 수준 악화와 정치적 자유 축소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불만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또 나발니가 구금된 뒤 국민의 불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러시아 내 고질적인 만성적인 부패,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후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17일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귀국 직후 체포됐다. 이후 나발니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주 토요일인 23일 시위에는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나발니 수감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변호사 에브게니야 라고지나는 러시아 서부 튜멘주에서 시위에 참가한 뒤 WSJ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편에서 부정부패로, 다른 한편에서 빈곤으로 정말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나발니 체포는 시위의 도화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괜찮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며 "그것이 푸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시위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WSJ은 최근 러시아 시위에는 중년층과 중산층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3일 시위 참가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40% 이상이 처음으로 시위에 나왔다. 반정부 시위에 공감하는 러시아 국민이 확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WSJ은 이번 시위가 심상치 않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 경제 악화를 꼽았다. 지난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약 20% 떨어지면서 가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가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러시아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부패 의혹도 부담이다. 나발니는 지난 19일 자신이 이끄는 '반부패재단'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위해 건설된 흑해 연안의 거대한 고급 리조트 시설에 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조회 수가 9천만 회를 넘겼으며 푸틴 대통령은 리조트 시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다만, 전국적인 시위에도 푸틴 대통령이 당장 정치적 위기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WSJ은 분석했다.

많은 러시아인은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자로 여기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그에 대한 지지도가 65%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푸틴 대통령은 권력기관인 경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이어갈 토대도 마련했다. 러시아는 작년 7월 국민투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인도 두 달 이어진 농민시위

인도 최대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Republic day)를 맞아 26일(현지시간) 트랙터를 앞세워 수도 뉴델리에 진입한 농민 시위대 중 한 명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법에 항의하며 두 달 가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방한, '양회' 후 3월~6월 중 유력

문 대통령과 통화서 시기 논의
코로나 재확산에 양국 모두 신중
중 동계올림픽 성공 한국 협조 필요

한국과 중국 정상이 26일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언제 한국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시도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무산된 바 있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서울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시진핑 주석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첫 국가로 한국을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시 주석의 방한은 중국 입장에서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무대 대외 활동 재개라는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조기 방한을 위한 소통을 강조했고 시 주석 또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2월 춘제(중국의 설)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야만 시 주석이 해외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순연돼 5월에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평년처럼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예정이라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3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한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해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통한 문화·체육 교류 확대가 시급하다. 한중 정상이 통화에서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것 또한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 정상 통화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으로선 한미 정상 통화를 먼저 하는 방안을 고려했겠지만,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다보스 어젠다 주간 연설에서 다자주의를 천명하면서 미국이 선택적 다자주의 등 독선적인 행태를 이어갈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불과 며칠 만에 한중간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을 동원한 대중국 압박에서 한국을 '중국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앞세워 중국 압박에 나설 공산이 큰 가운데 이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또한 중국 내 정치 일정을 볼 때도 한국을 우군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창당 100주년과 내년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해외 관광객 유치 등 대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중국과 더불어 방역 상황이 가장 낮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줄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日 스가 정부 긴급사태에도 여행·외식 예산 증액

3차 추경 예산안 가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코로나19 긴급사태와중에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수습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강화보다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주목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료기관이나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면 수정안을 3개나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28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3차 추경 예산안에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비가 1조311억엔,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사업비가 515억엔 반영돼 있다. 스가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주도한 양대 정책에 1조826억엔(약 11조 581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술 혁신·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조엔을 반영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는 고투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경제 정책에 11조 6766억엔(약 124조 2367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 담겼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전체 경비 19조 1761억엔 중 약 61%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의료 시스템 강화 및 의료 기관 지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확대 사업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비용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의료 관련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4조3581억엔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노출, 안과 질환 황반변성 위험 높여"

영국 UCL 안과학 연구소 분석

미세먼지가 노인 실명 1위의 안과 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황반이 손상돼 시야의 중심부를 보는 시력인 중심시(central vision)를 잃는 질환이다. 황반변성은 완치 방법은 없고 항체 주사 또는 레이저 수술로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뿐이며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진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안과학 연구소(Institute of Ophthalmology)의 폴 포스터 교수팀이 50만명의 유전자와 건강 정보가 수록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베이스 중 5만2602명(40~69세)의 안과 검사 자료와 이들 거주지의 공기오염도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과 가디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이 중 1286명이 AMD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 까지 법인 100억 /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 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